

익산 미륵사 중문, 디지털 콘텐츠로 복원...체험 서비스

등록 2024.05.17 14:56:20



[익산=뉴시스]고석중 기자 =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복원 과정과 사계절을 첨단장비를 통해 선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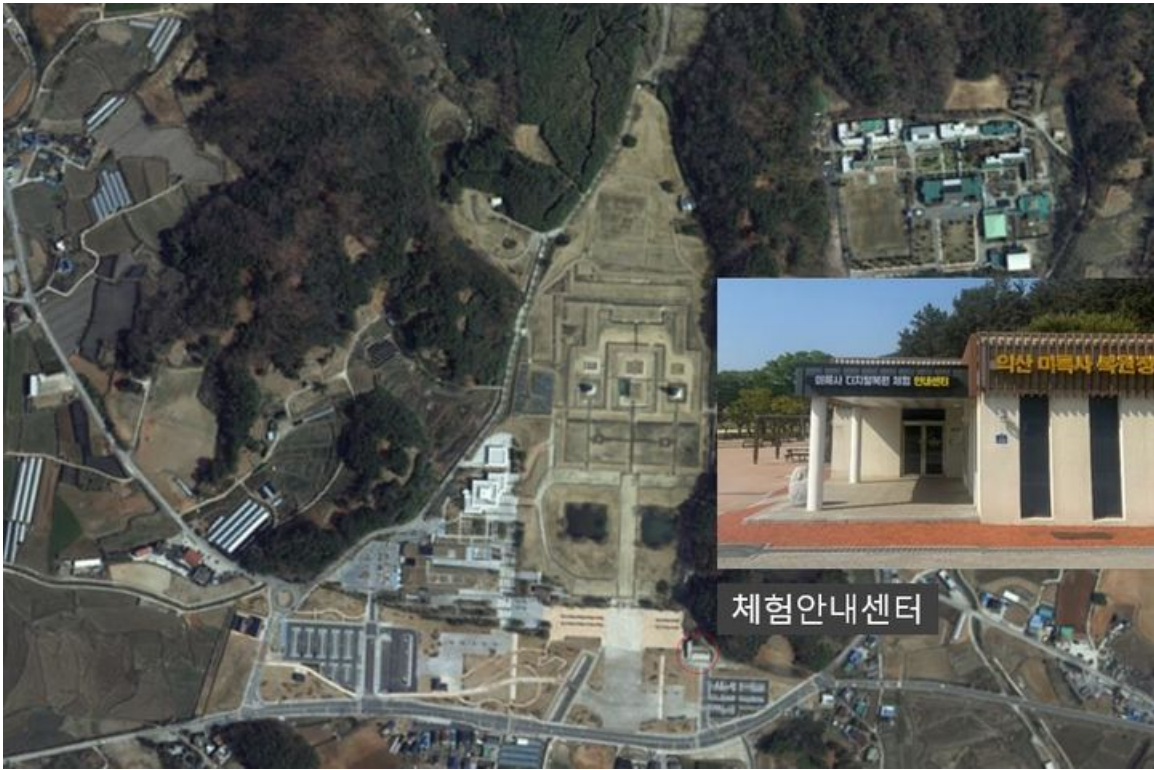
17일 국가유산청(전 문화재청) 출범일을 기념해 미륵사 중문(中門) 디지털 복원콘텐츠 체험서비스를 시작했다.

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건립됐다.

3개 탑과 3개 금당, 승방, 강당으로 형성된 사찰이 동·서로 나란히 배치된 '3탑 3금당'의 독특한 형식을 보이는 동양 최대의 사찰이다.

익산 미륵사지의 디지털 복원은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채택됐다.

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미륵사 중문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로 복원, '스마트글래스와 태블릿PC'로 국민들에게 시연해 호응을 이끌었다.



디지털 복원콘텐츠로 구현된 미륵사 중문은 2008년부터 연구한 고증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다. 미륵사의 동·서원 중문은 단층, 중원 중문은 2층 규모로 평공포와 하양구조를 가지고 있다.

참가자들은 증강현실로 구현된 미륵사 중문을 체험하기로 관람하며, 직접 중문을 부재별로 해체해 보고 전시 해설사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"미륵사의 디지털 복원이 중문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"며 "회랑과 각 건물, 목탑까지 미륵사의 온전한 모습을 제공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990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